

# ‘사회적 금융’ 지원액 늘었지만 수혜대상은 8% 불과

금융기관 지원 규모 35% 증가  
대상기업 적어 자금 몰릴 수도

소셜 벤처기업 등 대상 확대 필요  
퍼주기식 보다 자생방법 마련

금융기관이 일자리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금융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다. 금융지원으로 사회적 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 창출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대상이 제한돼 있는 데다 사회적 기업의 절반가량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부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금융을 위한 규준을 개정해 지원대상을 소셜 벤처 투자 등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

〈금융기관 사회적 금융 지원 실적〉

구분	2017		2018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증가액	증가율
사회적기업	1808%	2008	2499%	2987	979	48.8
협동조합	168%	329	1850%	278	-51	-15.5
마을기업	161%	156	188%	138	-18	-11.5
자활기업	167%	34	114%	21	-13	-38.2
소계	2304%	2527	2986%	3424	897	35.5

주:지원대상 기업이 두개이상의 유형 해당시지원금액순으로 집계

/금융위원회

적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주요 금융기관(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광주·부산은행 등)의 규모는 지난 2017년 2527억원에서 2018년 3424억원으로 35% 증가했다. 이들이 지원하는 대상은 주로 사회적 기업이 87.2%(2987억원)로 가장 많았고, 협동조합(8.1%), 마을기업

(4%), 자활기업(0.6%)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지원이 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금융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턱없이 부족한 것. 현재 국내 사회적 기업 중 투자자격 등급(BBB-이상)업체는 8% 수준이다. 사회적 금융지원은 보조나 기부와는 달리

회수(수익성)를 전제로 한다.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에 지원하길 바라지만 해당기업이 적어 특정기업에만 자금이 몰릴 수 있다.

계다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사회적 기업 1825곳 중 영업 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817곳(44.8%)에 달했다. 사회적 기업 평균 매출도 19억 5000만원으로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규모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사회적 기업의 성과가 개선되고 있지만 금융기관이 사회적 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금융과 관련한 규준을 개정해 금융기관이 사회적 기업에 활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성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사회적 금융을 지원하는 대상이 사회적 기업, 협동

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사회문제(일자리 창출 등)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소셜 벤처(사회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 등으로 확대해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보다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 등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과 은행 채널을 통한 사회적 기업 상품판매, 사회적 기업 물품을 구매한 기업에 대출 금리인하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하면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며 “부실우려가 없어질 수 있어 금융기관의 지원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oo.co.kr

IBK기업은행

사용금액 0.2% 돌려주는  
이지캐시백 체크카드 출시

IBK기업은행은 2일 ‘아이원(i-ONE)뱅크’ 출시를 기념해 ‘이지캐시백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지캐시백 체크카드’는 캐시백에 특화된 카드 상품이다.

국내와 해외 전 가맹점 사용금액의 0.2%를 돌려주는 ‘기본캐시백’ 혜택을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제공한다.

카드이용률이 높은 시간대인 점심(낮12~2시)과 저녁(오후 6~8시)에는 국내 전 가맹점에서 ‘기본캐시백’의 3배인 0.6%를 돌려준다.

또 전자금융이체 수수료·기업은행 ATM이체수수료 면제, 타행 ATM출금수수료 월 10회 면제, 은행에서 환전시 70%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우대 서비스’도 제공한다.

단, ‘타임캐시백’과 ‘금융우대 서비스’는 전월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다. /나누리 기자

## 하나금융 “신흥시장 진출 통해 2025년 글로벌이익 40%”

‘2018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휴머니티’ 기반 소통 강화  
사회적 가치창출 위해 최선

하나금융그룹이 ‘글로벌·디지털·리스크관리’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간다. 하나금융은 2일 ‘2018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경영활동과 성과를 공유하면서 “임직원과 손님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금융산업의 세계적인 트렌드인 ▲글로벌 ▲디지털 ▲리스크관리 등 3가지 부문에 대한 하나금융그룹의 활동과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공개했다.

우선 하나금융은 지난해를 디지털 전



하나금융그룹 본사 사옥.

환의 원년으로 삼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룹차원의 디지털전략회의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 기술 선행 연구를 지원하며 디지털 채널 비중을 40%로 확대했다.

글로벌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약 539억원(22.9%) 증가한 2892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했다. 하나금융의 주력시장인

중국내 자산증대와 더불어 신흥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지속적인 자산 증가를 이룬 것이 주 원인으로 꼽혔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앞으로도 아세안 지역 등 신흥시장 진출을 통해 성장 모멘텀과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며 “저성장·저마진 기조의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2025년까지 글로벌 이익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보고서를 통해 그룹 키워드인 ‘휴머니티(Humanity)’를 기반으로 펼친 사회적경영활동의 성과도 소개했다.

지난해 하나금융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와 연계해 진행한 경영활동은 ▲보육사업 확대 ▲기업문화 활성화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대내외 협업 증진 ▲사회적 가치를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확대 등 총 4가지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최고경영자(CEO) 메시지를 통해 “휴머니티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와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통해 기업 및 공동체와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수출입은행

칠레 구리광산 개발에  
PF금융 4억달러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2일 LS니꼬동제련이 장기구매계약을 맺은 칠레 구리광산 개발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출 2억4000만 달러, 보증 1억6000만 달러 등 총 4억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최대 광산업체인 테크 리소시스(Teck Resources)와 일본 비철금속업체인 스미토모금속광산사 등은 칠레 북부 타라파카 지역에 올해 1월부터 PF 방식의 차입금 25억 달러 등 총 47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 케브라다 블랑카 구리광산 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케브라다 블랑카 구리광산은 2021년부터 28년간 연평균 94만6000톤의 구리 정광(제련원료로 사용되는 반가공 구리 광석)을 생산할 예정이다. /나누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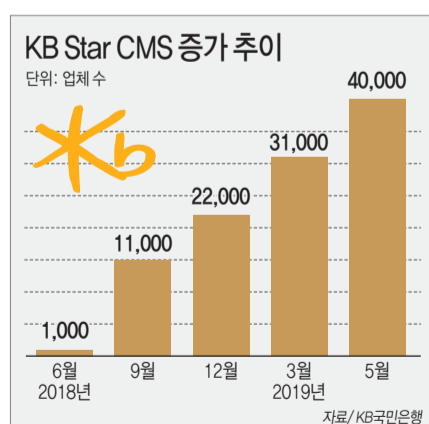
## KB국민은행, ‘스타CMS’ 가입 4만개사 돌파

국내·글로벌 자금관리 통합 제공  
인터넷뱅킹 모든서비스 무료이용

KB국민은행은 기업자금관리 플랫폼 ‘스타(Star) CMS’가 출시 11개월 만에 가입 기업고객이 4만개사를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스타 CMS는 기업의 국내자금관리와 글로벌자금관리를 통합 제공하며, KB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에서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모바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스타기업뱅킹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국내자금관리서비스는 기존 CMS상품을 통해 수수료를 부담하며 사용하던 주요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환경(UI/UX) 구성으로 업무 처리가 빨라졌으며, 한 번의 가입으로 핵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유사 업무 및 관련 메뉴를 과감히 통합해 간결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본·지사 관리 및 단계별 결제 기능은 스타 CMS의 대표적인 국내자금

통제 기능이다. 본사는 실시간으로 지사 계좌 거래내역 및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지사 계좌를 통해 이체할 수도 있다. 더불어 결제라인 설정을 통해 직원별 업무 권한을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직원 결제를 보고 받아 실시간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는 KB국민은행 국외 영업점을 통해 해외지사 자금에 대한 이체지시·자금통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해외 현지 은행 정보까지 한 화면에서 통합 관리가 가능한 글로벌은행 계좌조회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중국·베트남 등 총 21개 국가의 36개 은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거래기업이 추가로 해외은행 정보 요청 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0@

금감원

인니 등 금융당국 직원  
6~8주간 수련연수 실시

금융감독원은 금융당국 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신남방국을 대상으로 금융당국 직원 수련연수(OJT)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OJT는 해외금융당국의 실무직원(과장급)을 초청해 약 6~8주간 금융감독 실무지식을 전수하는 연수다.

올해는 상·하반기 총 2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 OJK와 라오스 LSCO 직원을 3명씩 초청했다.

신남방 주요국인 인도네시아의 통합 금융감독기구인 OJK를 작년 이어 올해에도 초청했으며, 그간 초청연수 교류가 비교적 적었던 라오스 증권감독당국인 LSCO 직원을 최초로 초청해 다음달 12일까지 6주간 연수를 실시한다.

/안상미 기자